

# 이펙티브 자바 CP.8

① 작성 일시	@2023년 3월 4일 오후 1:23
① 최종 편집 일시	@2023년 3월 10일 오후 7:29
◈ 유형	이펙티브 자바
⊙ 작성자	<sup>종현</sup> 종현 박
<b>≗</b> 참석자	
⊙ 언어	

### 8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원칙

- 57. 지역변수의 범위를 최소화하라
- 58. 전통적인 for 문보다는 for-each문을 사용하라
- 59. 라이브러리를 익히고 사용하라
- 60. 정확한 답이 필요하다면 float 과 double은 피하라
- 61.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
- 62. 다른 타입이 적절하다면 문자열 사용을 피하라
- 63. 문자열 연결은 느리니 주의하라
- 64. 객체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참조하라
- 65. 리플렉션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
- 66. 네이티브 메서드는 신중히 사용하라
- 67. 최적화는 신중히하라
- 68.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명 규칙을 따르라

## 🔞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원칙

### ▼ 57. 지역변수의 범위를 최소화하라

- 개요
  -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 (아이템 15)와 취지가 비슷하다.
  - 지역변수의 유효 범위를 최소로 줄이면 코드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높아지고 오류 가능성은 낮아 진다.
- 지역변수의 범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가장 처음에 쓰일 때 선언하기 이다.
  - 지역변수를 생각 없이 선언하다 보면 변수가 쓰이는 범위보다 너무 앞서 선언하거나, 다 쓴 뒤에도 여전히 살아 있게 되기 쉽다.

```
// C++, 개인적으로 학부생때 이런 코드를 짜는데, 이해가 안 됐다.
int i, j;
for (i = 0; i < 10; i++) {
    ...
}
... // i 관련된 코드 없음
```

- 지역변수의 범위는 선언된 지점부터 그 지점을 포함한 블록이 끝날 때까지이므로, 실제 사용하는 블록 바로 바깥에 선언된 변수는 그 블록이 끝난 뒤까지 살아 있게 된다.
- 거의 모든 지역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야 한다.
  - 초기화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해질 때까지 선언을 미뤄야 한다.
  - o try-catch 문에서는 예외다. 변수를 초기화하는 표현식에서 검사 예외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면 try 블록 안에서 초기화해야 한다.

변수 값을 try 블록 바깥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면 try 블록 앞에서 선언해야한다.

#### 반복문

- 반복문의 변수의 값을 반복문 종료된 뒤에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while 문 보다는 for 문을 쓰는 편이 낫다.
- 。 ex) 컬렉션이나 배열을 순회하는 권장 관용구

```
for (Element e : c) {
    ... // e 로 무언가 한다.
}
```

。 ex) 컬렉션이나 배열의 index 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의 관용구

```
for (Iterator<Element> i = c.iterator(); i.hasNext(); ) {
    Element e = i.next();
    ... // e와 i 로 무언가 한다.
}
```

。 ex)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

```
Iterator<Element> i = c.iterator();
while(i.hasNext()) {
    doSomething(i.next());
}
...
Iterator<Element> i2 = c2.iterator();
while(i.hasNext()) { // 버그
    doSomethingElse(i2.next());
}
```

- 문제 <u>i2.hasNext()</u> 가 아닌 <u>i.hasNext()</u> 로 항상 비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.
- for 문을 사용하면 반복문 안에서 지역변수가 초기화, 종료 됨으로,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다.
- o ex) 문제 코드를 for 문 으로 변경한 코드

```
for (Iterator<Element> i = c.iterator(); i.hasNext(); {
    Element e = i.next();
    ...
}
// i 를 찾을 수 없다며 컴파일 에러를 낸다.
for (Iterator<Element> i2 = c.iterator(); i.hasNext(); {
    Element e2 = i2.next();
```

```
}
```

- for 문의 경우 복붙하는 코드에서 c 를 c2 만 바꿔줘도 된다.
- while 문 보다 짧아서 가독성이 좋다.
- 메서드를 작게 유지하고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만드는게 좋다.
  - 한 메서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처리한다면 그 중 한 기능과만 관련된 지역변수라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.

### ▼ 58. 전통적인 for 문보다는 for-each문을 사용하라

• 전통적인 for 문

```
for (Interator<Element> i = c.iterator(); i.hasNext(); ) {
    Element e = i.next();
    ... // e 로 뭔가를 한다.
}
for (int i = 0; i < a.length; i++) {
    ... // a[i]로 무언가 한다.
}
```

- While 문 보다는 낫지만 (아이템 57)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.
- 반복자와 인덱스 변수는 모두 코드를 지저분하게 할 뿐 필요한 건 원소들이다.
- i.next, i 는 사용하지는 않지만, 등장횟수가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
- for-each 문

```
for (Element e : elements) {
    ... // e로 무언가를 한다.
}
```

- 반복자와 인덱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니 코드가 깔끔해지고 오류 날 일도 없다.
- 。 컬렉션을 중첩해 순회해야 한다면 for-each 문의 이점은 더욱 커진다.
- 버그가 있는 for 문

o i.next() 가 Suit 하나당 한 번씩만 불려야 하는데, 안쪽 반복문에서 호출되는 바람에 카드 하나 당 한 번씩 불려서, 숫자가 바닥 나면 NoSuchElementException 을 던질 것이다.

#### • 또 다른 버그

```
enum Face {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 }
...
Collection<Face> faces = EnumSet.allof(Face.class);

for (Iterator<Face> i = faces.iterator(); i.hasNext(); )
    for (Iterator<Face> j = faces.iterator(); j.hasNext(); )
        System.out.println(i.next() + " " + j.next());
```

- 예외를 던지지는 않지만,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다.
- 1, 1~6, 6총 6개만 출력하고 끝낸다. 의도대로면 36개가 나와야함.
- 해결 코드

```
for (Suit suit : suits)
  for (Rank rank : ranks)
    deck.add(new Card(shit, rank));
```

#### • for-each 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

- 1. 파괴적인 필터링
  - 컬렉션을 순회하면서 선택된 원소를 제거해야 한다면 반복자의 remove 메서드를 호출해야 한다.
  - for-each 원소에서 remove(Object e) 를 사용하면 ConcurrentModificationException 에러가 발생한다.
  - 자바 8부터는 Collection 에는 removeIf 라는 메서드를 제공하면서, 명시적으로 순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.

#### 2. 변형

• 리스트나 배열을 순회하면서 그 윈소의 값 일부 혹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리스트의 반복 자나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해야 한다.

#### 3. 병렬 반복

- 여러 컬렉션을 병렬로 순회해야 한다면 각각의 반복자와 인덱스 변수를 사용해 엄격하고 명시적으로 제어해야 한다.
- 위 3가지 경우에는 위에 나왔던 for 문을 사용하되, for 문 사용시 문제들을 주의하자.
- for-each 를 사용하려면 Ite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자.

```
public interface Iterable<E> {
    // 이 객체의 원소들을 순회하는 반복자를 반환한다.
    Iterator<E> iterator();
}
```

- 원소들의 묶음을 표현하는 타입을 작성해야 한다면 Iterable 을 구현하도록 하자.
- 정리
  - 전통적인 for 문과 비교해서 for-each 문이 더 명료하고, 유연하고, 버그를 예방해준다.

- 。 성능저하 도 없다.
- for-each 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도록 하자.

### ▼ 59. 라이브러리를 익히고 사용하라

- 흔히 마주치는 문제
  - 。 ex) 무작위 정수를 생성하는 코드

```
static Random random = new Random();
static int random(int n) {
    return Math.abs(random.nextInt()) % n;
}
```

- n 이 크지 않은 2의 제곱수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열이 반복된다.
- n 이 2의 제곱수가 아니라면 몇몇 숫자가 평균적으로 더 자주 반환된다.
  - n 값이 크면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.

```
int n = 2 * (Integer.MAX_VALUE / 3);
int low = 0;
for (int i = 0; i < 1000000; i++)
    if (random(n) < n / 2)
        low++;
System.out.println(low);</pre>
```

- 메서드를 1,000,000 번 돌려서 n/2 < 이 true 인 경우가 약 50만 개가 나와야 하지만, 666,666 에 가까운 숫자를 얻는다.
- 지정한 범위 '바깥'의 수가 종종 튀어나 올 수 있다.
  - random.nextInt() 가 반환 값을 Math.abs 를 이용해 음수가 아닌 정수로 매핑하기 때문이다.
  - nextInt() 가 Integer.MIN\_VALUE 를 반환하면 Math.abs 도 Integer.MIN\_VALUE 를 반환하고, 나머지 연산자는 음수를 반환한다.
- 이 문제들은 의사난수 생성기, 정수론, 2의 보수 계산 등에 깊이가 있어야 한다.
  - 다행이 이 문제들은 Random.nextInt(Int) 가 이미 해결해놨다.
  - 。 이 메서드의 자세한 동작 방식은 몰라도 된다.

#### • 표준 라이브러리 장점

-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그 코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지식과 여러분보다 앞서 사용한 다른 프로그래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.
- 핵심적인 일과 크게 관련 없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.
-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능이 지속해서 개선됨. (버전업 하면서 표준 라이브러리가 업뎃)
- o 기능이 점점 많아진다.

- 작성한 코드가 많은 사람에게 낯익은 코드가 된다. 자연스럽게 더 읽기 좋고, 유지보수하기 좋고, 재활용 쉬운 코드가 된다.
- Java 라이브러리가 방대하여 모든 API 문서를 보는건 어렵겠지만, 적어도 java.lang, java.util, java.oi 와 그 하위 패키지들은 익숙해져야 한다.
  - 추가적으로 컬렉션 프레임워크, 스트림 라이브러리(아이템 45 ~ 48), java.util.concurrent 동시성 기능 (아이템 80, 81) (내가 synchronized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됨)
- 정리
  - 구현하기 전 먼저 구글링(찾아보자)을 해보자. 대부분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구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.
  - 누구나 쓰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. (github star)

### ▼ 60. 정확한 답이 필요하다면 float 과 double은 피하라

- float, double 타입
  - 부동소수점 연산에 쓰이며, 넓은 범위의 수를 빠르게 정밀한 '근사치'로 계산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.
  - 。 따라서 정확한 결과가 필요할 때는 사용해선 안 된다.
  - 。 특히, 금융 관련 계산에는 맞지 않는다.
  - 학부생때 배웠던 내용으로는, 0.1 을 표현하려면,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, 2^0, 2^-1, 2^-2, 2^-3, 2^-4, 2^-5 ... 에서 2^-4, 2^-5 를 사용하고 0.06125 + 0.030625 + a 로 해서 정확한 소수 점의 수를 구할 수 없다.
  - 예를 들어 1.03 0.57 을 하면 0.46 이 아닌 0.460000000000001 을 출력한다.
  - 。 반올림을 한다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- ex) 금융 계산 부동소수점 타입 사용

```
public static void man(String [] args){
   double funds = 1.00;
   int itemsBought = 0;
   for (double price = 0.10; funds >= price; price += 0.10) {
      funds -= price;
      itemsBought++;
   }
   System.out.print(itemsBought);
   System.out.print(funds);
}
```

- 결과로 4, 0 출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, 결과는 3, 0.39999999999999 를 출력한다.
- 이를 위해 소수점 계산에는 BigDecimal, int 혹은 long 을 사용해야한다.
- ex) BigDecimal 사용해서 문제 해결

```
public static void man(String [] args){
   final BigDecimal TEN_CENTS = new BigDecimal(".10");

int itemsBought = 0;
   BigDecimal funds = new BigDecimal("1.00");
```

```
for (BigDecimal price = TEN_CENTS; funds.compareTo(price) >= 0; price = price.add(TEN_CENTS)) {
    funds.subtract(price);
    itemsBought++;
}
System.out.print(itemsBought);
System.out.print(funds);
}
```

- 기본 타입보다 쓰기가 훨씬 불편하고, 훨신 느리다.
- ex) 단위를 최소 단위에 맞춰서 기본 타입으로 해결

```
public static void man(String [] args){
   int funds = 100;
   int itemsBought = 0;
   for (int price = 10; funds >= price; price += 10) {
      funds -= price;
      itemsBought++;
   }
   System.out.print(itemsBought);
   System.out.print(funds);
}
```

#### • 정리

- 정확한 답이 필요한 경우 float, double 를 피해라
- 소수점 추적은 시스템에 맡기고, 불편함과 성능 저하에 신경 쓰지 않겠다면 BigDecimal 을 사용해 라
  - BigDecimal 은 여덟 가지 반올림 모드를 이용해 반올림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.
- 반면, 성능이 중요하고 소수점을 직접 추적할 수 있고, 숫자가 크지 않다면, int 나 long 을 써라
- 숫자 표현 범위가 10^9 인 경우 int , 10^18 인 경우 long , 그 이상인 경우 BigDecimal

### ▼ 61.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

- 기본 타입에 대응하는 참조 타입
  - int → Integer
  - double → Double
  - boolean → Boolean
- 오토 박싱, 오토 언박싱
  - 오토 박싱 기본 타입이 참조 타입으로 변경되는 것
  - 。 오토 언박싱 참조 타입이 기본 타입으로 변경되는 것
- 기본 타입과, 박싱된 기본 타입의 주된 차이
  - 1. 기본 타입은 값만 갖고 있으나, 박싱된 기본 타입은 값에 더해 식별성이란 속성도 갖는다.
  - 2. 기본 타입의 값은 언제나 유효하나, 박싱된 기본 타입은 유효하지 않는 값 👊 을 갖을 수 있다.
  - 3. 기본 타입이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 시간과 메모리 면에서 더 효율 적이다
- ex) Integer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비교자 잘못 구현됨

```
Comparator<Integer> naturalOrder =
    (i, j) -> (i < j) ? -1 : (i == j ? 0 : 1);
```

- <u>i == j</u> 는 참조형 식별성을 검사하게 된다.
- 즉, 이 결과는 같은 값 Integer 이 올 경우 false 가 됨으로, 같은 값에 1을 반환한다.
- 같은 객체를 비교하는게 아니라면, 박싱된 기본 타입에 == 연산자를 사용하면 에러 난다
- 기본 타입을 다루는 비교자가 필요하면 Comparator.naturalOrder 을 사용하자
  - 박싱된 기본 타입에서 compareTo 메서드를 잘 구현해놨다.
  - 비교자를 직접 만들려면 비교자 생성 메서드나 기본 타입을 받는 정적 compare 메서드를 사용해야 한다. (아이템 14)
  - 위 문제를 고치려면 기본타입의 지역 변수를 2개 두어 언박싱 후 비교 로직을 수행한다.

```
Comparator<Integer> naturalOrder = (iBoxed, jBoxed) -> {
   int i = iBoxed, j = jBoxed;
   (i < j) ? -1 : (i == j ? 0 : 1);
};</pre>
```

• ex) 기본 타입과 박싱된 기본 타입의 연산

```
Integer i;
if (i == 42)
System.out.println("출력 될까?");
```

- 해당 소스는 NullPointException 을 던진다.
- Integer 기본 값은 null 값이고, 기본 타입과 박성된 기본 타입의 혼용한 연산에서는 박성된 기본 타입의 박성이 자동으로 풀린다.
- ex) 박싱과 언박싱의 반복으로 성능이 느려지는 코드

```
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Long sum = 0L;
   for (long i = 0; i <= Integer.MAX_VALUE; i++) {
      sum += i;
   }
   System.out.println(sum);
}</pre>
```

- 오류나 경고 없이 컴파일 되지만, sum += i 시 박싱, 언 박싱이 반복해서 일어나 성능이 굉장히 느려진다.
- 박싱된 기본 타입을 써야 할 때
  - 1. 컬렉션의 원소, 키, 값으로 쓰인다. 컬렉션은 기본 타입을 담을 수 없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박싱된 타입을 써야만 한다. 매개변수화 타입이나 매개변수화 메서드의 타입 매개변수로든 박싱된 기본타입을 써야하기 때문 이다.

- 2. ThreadLocal<Integer>
- 3. 리플렉션 (아이템 65) 를 통해 메서드 호출시 박싱된 기본 타입 사용

#### • 정리

- 기본 타입과 박싱된 기본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, 가능하다면 기본 타입
  - 간단하고 빠름, 박싱된 타입을 써야 한다면 주의하자.
- 오토 박싱이 박싱된 기본 타입을 사용할 때의 번거러움을 줄여주지만, 그 위험은 유효하다.
- 박싱된 기본 타입을 == 연산자로 비교하면 식별성 비교가 이뤄지는데, 원하는 결과가 아닌 가능성이 높다.
  - a = new Integer(42), b = new Integer(42)
  - a == b 는 false 를 반환
- 기본 타입과 박싱된 기본 타입을 혼용하면, 언 박싱 과정에서 nullPointException 을 던질 수 있다.
- 기본 타입을 박싱하는 작업은 필요 없는 객체를 생성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.

#### ▼ 62. 다른 타입이 적절하다면 문자열 사용을 피하라

- 문자열은 다른 값 타입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.
  - 파일, 네트워크, 키보드 입력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 문자열을 받지만, 입력받을 데이터가 진짜 문자 열일 때만 그렇게 하는게 좋다.
  - 수치형이라면, int, float, BigInteger 등 적당한 수치 타입으로 변환해야 한다.
  - 기본 타입이든 참조 타입이든, 적절한 값 타입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, 없다면 새로 하나 작성하라.
- 문자열은 열거 타입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.
  - 상수 열거할 때는 문자열보다는 열거 타입이 훨 낫다. (아이템 34)
- 문자열은 혼합 타입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.
  - 여러 요소가 혼합된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생각임.
  - 。 ex) 혼합 타입을 문자열로 처리한 예

```
String compoundKey = className = "#" + i.next();
```

- 혹여라도 구분자 #이 두 요소 중에 하나에서 쓰였다면, 문제가 된다.
- 각 요소를 개별로 접근하려면 문자열을 파싱해야 해서 느리고, 귀찮고,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.
- 적절한 equals, toString, compareTo 메서드를 제공할 수 없으며, String 이 제공하는 기능에 만 의존해야한다.
- 차라리 private 정적 멤버 클래스로 전용 클래스를 만드는게 낫다. (아이템 24)
- 문자열은 권한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.
  - 。 권한을 문자열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
  - ∘ ex) 문자열을 사용해 권한을 구분함 문자열 키로 스레드별 지역변수 식별

```
public class ThreadLocal {
    private ThreadLocal() { } // 객체 생성 불가
    private static void set(String key, Object value);
    public static Object get(String key);
}
```

- 이 방식의 문제는 스레드 구분용 문자열 키가 전역 이름공간에서 공유된다는 점이다.
- 의도대로 동작은, 각 클라이언트가 고유한 키를 제공해야 한다.
   그런데 만약 두 클라이언트가 서로 소통하지 못해 같은 키를 쓰기로 결정한다면, 의도지 않게 같은 변수를 공유하게 된다.
- ▼ String 도 객체 생성이 아니냐? 왜 문제가 되느냐?

```
String s = "ss";
String s1 = "ss";
String s2 = new String("ss");

System.out.println(s == s1); // true
System.out.println(s == s2); // false
System.out.println(s1 == s2); // false
```

- 자세한 내용은 String Constant Pool 를 찾아보자.
- o ex) 해결책 문자열 대신 위조할 수 없는 키를 사용하면 해결된다.

```
public class ThreadLocal {
    private ThreadLocal() { }

public static class Key {
        key() { }
    }

public static Key getKey() {
        return new Key();
    }

public static void set(Key key, Object value);
    public static Object get(Key key);
}
```

- 고유한 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- set 과 get 이제 정적 메서드일 이유가 없으니 key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서드로 바꾼다. 이렇게 되면 key 는 더 이상 스레드 지역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키가 아닌, 그 자체가 스레드 지역 변수가 된다. ThreadLocal 은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짐으로 치우고 key 이름을 ThreadLocal 로 바꿔 버리자.

```
public final class ThreadLocal {
   public ThreadLocal();
   public void set(Object value);
   public Object get();
}
```

- 여기서 Object 를 실제 타입으로 형변환해야 됨으로 타입 안전하지 않다.
- ThreadLocal 을 매개변수화 타입(아이템 29)로 선언하자

```
public final class ThreadLocal<T> {
   public ThreadLocal();
   public void set(T value);
   public T get();
}
```

#### • 정리

- o 더 적합한 데이터 타입이 있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다면, 문자열을 쓰지말자
- 문자열은 잘못 사용하면 번거롭고, 덜 유연하고, 느리고, 오류 가능성이 있다.
- 문자열을 잘못 사용하는 흔한 예로는 기본 타입, 열거 타입, 혼합 타입이 있다.
- 최근 했던 문제
  - 。 OTP 기능을 개발 중
    - Map 구현체를 사용하면서, String Key 값으로 user\_Id::OTP\_number 로 설정 했었다. value 값으로는 System.currentTimeMillis() 값이다.
    - 재발급 로직에서 map.keySet().iterator() 로 value.contains(user\_Id + "::") 로 있는지 판단 하여 해당 데이터를 하나 날렸는데, 이 방식이 아닌, 내부 정적 클래스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. (물론, user\_Id, OTP\_number 에 :: 가 들어가진 않지만, 문자열 처리 방식 로직이 늘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, String 객체를 생성함으로 느려질 것 같다.

### ▼ 63. 문자열 연결은 느리니 주의하라

- 문자열 연결 연산자 +
  - 。 여러 문자열을 하나로 합쳐주는 수단이다.
  - 。 하지만, 엄청나게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.
    - 문자열 n 개를 잇는 시간은 n^2 이 걸린다.
    - 문자열은 불변이라서, 두 문자열을 연결할 경우 양쪽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야 함으로
- ex) String 연결 연산자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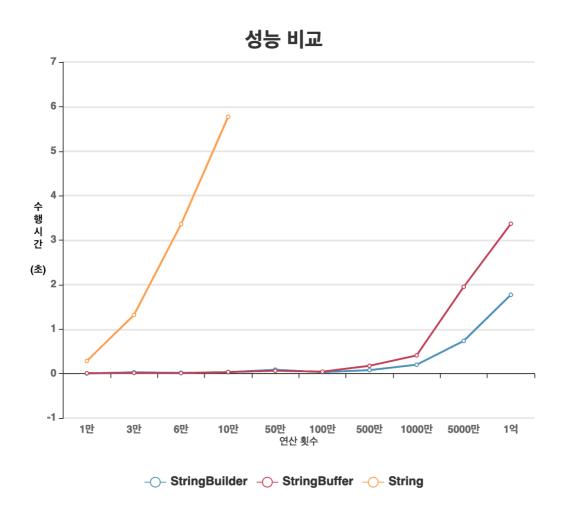
```
public String statement() {
   String result = "";
   for (int i = 0; i < numItems(); i++)
      result += lineForItem(i);
   return result;
}</pre>
```

• ex) StringBuilder 를 사용함

```
public String statement2() {
   StringBuilder b = new StringBuilder(numItems() * LINE_WIDTH);
   for (int i = 0; i < numItems(); i++)</pre>
```

```
b.append(lineForItem(i));
return b.toString();
}
```

- 。 성능이 훨신 좋다
- 멀티 쓰레드 환경에서는 StringBuffer 를 쓰자
  - 사용 방법은 StringBuilder 와 같다
- 정리
  - 문자열 연결이 많은 경우는 StringBuilder 를 쓰고
  - 멀티 쓰레드 환경이면 StringBuffer 를 쓰자.
- ▼ 성능비교 (구글링)



- ▼ 64. 객체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참조하라
- ▼ 65. 리플렉션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
- ▼ 66. 네이티브 메서드는 신중히 사용하라
- ▼ 67. 최적화는 신중히하라

# ▼ 68.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명 규칙을 따르라